

해암(懈菴) 김응정(金應鼎)의 가곡(歌曲)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와 그 의의*

박 명 희**

차 례

- | | |
|-----------------------|----------------------|
| 1. 머리말 | 2) 오이건(吳以健) 등 3인의 평가 |
| 2. 김응정의 문예 기질과 가곡 | 3) 이하곤(李夏坤)의 평가 |
| 3. 김응정 사후(死後) 후대인의 평가 | 4. 평가의 특징과 의의 |
| 1) 애도(哀悼) 시인들의 평가 |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해암 김응정의 가곡에 대한 후대인들의 평가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언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김응정은 느낌을 받으면 노랫말을 지어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을 힘껏 풀어내었는데, 그 결과 「문명묘승하작」·「소분설」·「직첩하작차불기」·「김병사피나시작차증지」·「문반정」·「탄공자」·「척거홍당」·「감회」 등의 가곡을 창작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김응정 사후 후대인의 평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첫

* 『懈菴文集』 권1 「歌曲」 부분에 김응정이 지은 국문 시가가 정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집의 ‘가곡’이라는 말을 존중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전남대학교 강사

째, 애도 시인들의 평가 내용을 살폈다. 김응정이 세상을 뜨자 여러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남겼다. 현재 남아있는 시 작품으로는 백상현이 지은 「애김처사」, 서봉령이 지은 「은괄해암김처사문」 및 「우추도삼절」, 「우은괄봉명절」, 윤항서가 지은 「차서매학은괄가곡운」, 신명규가 지은 「차매학운도해암」 및 「우화도리곡」, 이몽제가 지은 「추회선생운」 및 「우차봉황대운」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품 중에서 가곡을 평가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오이건이 쓴 「김해암가곡집서」와 오희점이 쓴 「제해암가곡집후」, 최정익이 쓴 「제선생집후」에 담긴 김응정의 문학 작품 평가 관련 내용을 추출해 실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셋째,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이자 평론가인 이하곤의 평가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이하곤의 평가는 김응정 사후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 강진 현지에서 들은 내용을 기록을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후대인들은 김응정의 가곡 중에서 「문명묘승하작」·「문반정」 두 작품을 가장 많이 거론했음을 특징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김응정은 벼슬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서울과 멀리 떨어진 강진에서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성을 인정하고, 후대인들이 지속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부여했다.

주제어 : 해암 김응정, 전남 강진, 「문명묘승하작」, 서봉령, 오이건, 오이점, 최정익, 이하곤

1. 머리말

본 논문은 해암(懈菴) 김응정(金應鼎, 1527~1620)의 가곡에 대한 후

대인들의 평가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언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김응정은 당시 서울과 거리가 먼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 같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행력을 통해 볼 때, 향촌 사족으로서 배우고 익힌 것을 몸소 실천해 옹가다 할 수 있는데, 아울러 가곡 창작 능력까지 구비하여 관련한 연구 성과물이 현재 축적된 상황이다.¹⁾ 이러한 김응정의 문학 연구 성과물은 대체로 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그런데 본 논문은 김응정을 보는 각도를 달리 하여 후대인들은 그가 남긴 가곡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김응정은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는데, 사후(死後) 여러 사람들에 의해 평가를 받았다. 물론 그러한 평가의 일부 내용은 현재 『해암문집』에 실려 전하고 있어서 그 실상을 대략 알 수 있으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 말할 수 있다. 또한 그 평가는 대략 인품 및 행적과 관련한 것과 가곡 창작 능력에 관련한 것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후자 부분에 치중해 논의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을 계기로 김응정의 가곡의

1) 지금까지 이룩한 김응정 관련 논문 연구 성과물을 먼저 나온 연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광현, 「金應鼎의 時調」, 『書林』 제2호, 전북대학교 문리과 학생회, 1972. 진동혁, 「김응정 시조 연구」, 『국어국문학』 90집, 국어국문학회, 1983. 진동혁, 「金解菴歌曲集序等에 관하여」, 『겨레어문학』 10권, 겨레어문학회, 1985. 김명순, 「시조 「삼동에 배웃 입고」의 문헌 전승 양상 연구」, 『시조학논총』 24집, 한국시조학회, 2006. 배대웅, 「조선시대 강진 지역 시조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정기선, 「해암 김응정의 생애와 문학」, 『한국고전연구』 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김만호, 「임진왜란 시기 康津 지역의 의병활동과 金陵倡義錄」,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역사문화학회, 2016. 김경국, 「강진 원주이씨의 백운동 별서 정착과정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81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한편, 梁光植은 김응정의 문집 『해암문집』을 번역(강진문헌연구회, 1994)한 바 있고, 편역서 『歌曲을 남긴 解菴 金應鼎』(강진문사고전연구소, 2005)을 남겼다. 또한 김신중은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도서출판 다지리, 2001)을 통해 김응정의 시조를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이룩한 김응정 관련 연구 성과물을 보면, 김만호와 김경국의 논문을 제외한 대다수는 문학을 연구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실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후 후대인의 평가 내용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2장에서 김응정의 문예 기질과 가곡 작품을 정리할 것이다.

2. 김응정의 문예 기질과 가곡

김응정의 자는 사화(士和)이고, 호는 해암이며, 본관은 도강(道康)이다. 태어난 곳은 강진군 병영면 동삼인(東三仁) 향교동(鄕校洞)으로, 아버지는 한결(漢傑)이고, 어머니는 해남윤씨 상보(尙甫)의 딸이다. 여러 대에 걸친 벌열 집안이라고 기록했으니, 당시 강진 지역의 향촌 사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

김응정은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에 비해 명민하였고, 몸가짐도 반듯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 그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니 마을 사람들이 ‘효동(孝童)’이라 불렀다. 34세(1560, 명종15)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손수 무덤을 만들어 그 곁 여막에서 3년 동안 지냈으며, 아울러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도 성심성의껏 돌봤다. 그리고 3년 뒤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여막살이를 하였다. 또한 김응정은 한양과 멀리 떨어진 강진에 살고 있었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 못지않았다. 따라서 39세(1565, 명종20) 때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고, 이어 2년 뒤에 명종이 세상을 뜨자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각각 3년 상을 치렀으며, 82세(1608, 선조41) 때 선조가 세상을 뜨자 마찬가지로 3년 상을 치러 한결같은 자세를 보여주었다. 때문에 이러한 김응정의 충효의 행실과 맑고 고결한 절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이어 김응정의

2) 김응정의 행력은 桐岡 李穀敬이 작성한 「행장」에 근거하였다. 김응정의 「행장」은 『해암문집』 부록 권2와 이의경의 문집 『桐岡遺稿』 권6에 수록되어 있다.

행실과 절개는 널리 알려져 급기야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송강(松江) 정철(鄭澈)과 전라도 관찰사 최관(崔瓘) 등이 나라에 보고하였다. 이 덕분에 경릉 참봉과 사헌부 지평 벼슬이 내려졌으나 김응정은 나아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과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금산에서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응정은 분한 감정을 심히 느껴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자는 격문을 보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김응정의 나이는 66세였다. 김응정은 당시 고을의 신망을 받고 있던 사족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직접 이끌지는 못하고 대신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에게 맡겼다. 아울러 전답과 노비를 팔고 직접 소금을 굽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식량 500섬을 모아 의병에 전달하였다. 임진왜란과 같이 나라에 변고가 생겼을 때 손수 발 벗고 나선 김응정은 향촌이 겪고 있는 문제에도 늘 관심을 기울였다. 바로 당시 강진에 있던 전라도 병영(兵營)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청한 상소문을 지은 것이다. 원래 전라도 병영은 광주(光州)에 있었는데, 1417년(태종17)에 강진으로 옮겨와 여러 폐단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상소문은 임금에게 올리지 못하여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김응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불의한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광해군 때 이이첨(李爾瞻)편에 섰던 사람들이 강진에도 있어서 이들은 향교에 모여 인목대비(仁穆大妃)를 내쫓자는 글을 임금께 올리려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김응정은 몹시 화를 내며 향교에 쫓아가 임금에게 올리려 한 글을 빼앗아 찢어버려 일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김응정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지 살폈다. 그 삶을 보면, 충과 효로 뭉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향촌 문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응정은 타고난 성품이 자연을 좋아하여 좋은 풍광을 찾아 두루 다녔는데, 때로는 그 장소에 봉황대(鳳凰臺)·정선대(停仙臺)·삼가

정(三佳亭) 등의 누대를 지어놓고 오가면서 쉬기도 하였다. 또한 느낌을 받으면 노랫말을 지어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을 힘껏 풀어내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의경은 「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또 어려서부터 음률에 밝아 경계를 만나면 문득 가사를 지어 그 가슴 속의 기이함을 펼쳐 일으켰다. 가령, 「서산일락지가」 5,6장은 여전히 세상에 널리 퍼져 늘 한번 읊조리면 지금 사람들이 감동받은 바가 있다. 낱말이 모두 세상 가르침에 관련이 있고, 경치에 폭 빠지거나 시와 술에 방랑할 뿐만은 아니었다.³⁾

이 글에 따르면, 김응정은 어려서부터 음률에 밝았다. 그래서 어떤 경치를 만나면 노랫말을 지어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었다. 김응정이 남긴 노랫말 중에 「서산일락지가」의 경우,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불리고 있으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랫말은 세상의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고, 경치를 읊거나 시와 술로 방랑할 뿐은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김응정이 어려서부터 지니고 있던 문예 기질이 어느 정도였으며, 그가 지은 가곡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널리 퍼졌다는 것, 그리고 가곡의 특징을 주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이의경이 지은 「행장」 외에 김응정의 뛰어난 노랫말 창작 실력은 22년 후배 광기수(郭期壽, 1549~1616)가 남긴 다음의 시 구절에도 나타나 있다.

이 사람의 맑은 노래 가는 구름 멈추니	斯人清唱遏歸雲
젊은 시절 풍류를 세상 사람들 말하네	少歲風流世所云
이제 그 뉘 남산 대나무에 날개 달아줄까	祇今誰羽南山竹
당년에 성인 문하에 들지 못함이 한이다	恨未當年入聖門 ⁴⁾

3) 金應鼎, 『懈菴文集』 卷2, 「行狀」(李穀敬): 且自少。曉音律。遇境。輒作爲歌詞。發揚其胸中之奇。如西山日落之歌五十六章。尙流傳於世。每一吟咏。今人有所感發。——皆有關世教。非爲流連光景放浪詩酒而已。

곽기수는 김응정이 살아있을 때 『증김처사(贈金處士)』 7수를 지었는데, 인용한 이 작품은 그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곽기수의 자는 미수(眉壽)이고 호는 한벽당(寒碧堂)이며, 본관은 해미(海美)로, 강진에서 세거하였다. 23세 때 성균관에 입학하여 31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35세 때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정자를 시작으로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쳤다. 48세 임진왜란이 한창일 때 부안 현감에 임명되었으나 1년도 채 안 되어 벼슬을 버린 채 부모님을 봉양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강진 사족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순천성 부근에서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곽기수는 영암 월출산 인근에 취원당(聚遠堂)이라는 곳을 마련하여 한가롭게 지내기도 하였다. 또한 광해군이 왕에 오르자 두문불출하면서 『주역』에 몰두하여 급기야 『주역』의 암송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올랐다는 소문도 있었다. 또한 시조 한역 작품 『취원당십경단가(聚遠堂十景短歌)』 10수와 가사의 한역 작품 『북창춘면가(北窓春眠歌)』 1편, 그리고 『만흥삼결(漫興三闋)』이라는 시조 작품을 남겼으니, 이를 보면 작품 창작 능력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⁵⁾

곽기수는 인용한 위 작품 기구와 승구를 통해 김응정이 문예 기질이 뛰어났으며, 세상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김응정이 노래를 부르면 어찌나 맑든지 하늘의 흘러가던 구름도 멈추었다고 하였다. 과장된 말일 수도 있으나 그 정도로 김응정이 부른 노래가 훌륭했다는 것을 뜻하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곽기수의 시각은 이의경이 『행장』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4) 金應鼎, 『解菴文集』 附錄 卷2, 『贈金處士』 다섯 번째 작품.

5) 곽기수의 생애와 국문시가에 대한 연구는 조지형의 논문(『寒碧堂 郭期壽의 국문시가 향유 양상과 시가사적 의미』, 『민족문화연구』 74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9-38쪽)을 참조할 것.

그렇다면 김응정의 가곡은 현재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김응정의 문집 『해암문집』 권1 「가곡」 부분에 총 8편의 국문 시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그 8편의 작품을 나열하면, 「문명묘승하작(聞明廟昇遐作)」·「소분설(掃墳雪)」·「직첩하작차불기(職帖下作此不起)」·「김병사피나시작차증지(金兵使被拿時作此贈之)」·「문반정(聞反正)」·「탄공자(歎孔子)」·「척거흉당(斥拒凶黨)」·「감회(感懷)」 등이다. 「문명묘승하작」은 이의경이 「행장」에서 말한 「서산일락지가」의 또 다른 이름으로, 1567년 명종이 승하하자 지은 작품이고, 「소분설」은 부모의 묘를 쓸면서 지은 작품이며, 「직첩하작차불기」는 조정에서 임명장이 내려왔으나 자신을 갈매기에 비유하며 결국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적은 작품이고, 「김병사피나시작차증지」는 임진왜란 때의 장군 김억추(金億秋)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작품이며, 「문반정」은 반정(反正) 소식을 듣고 지은 작품이고, 「탄공자」는 공자(孔子)를 찬탄하는 작품이며, 「척거흉당」은 흉당을 척거하자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고, 「감회」는 회포를 적은 작품이다.

이러한 8편의 가곡 작품을 보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나라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를 담은 내용이 있어서 이의경이 「행장」에서 말한 “경치를 읊거나 시와 술로 방랑할 뿐은 아니었다.”라는 내용과 맞아떨어진다. 즉, 김응정의 가곡 작품은 세상의 가르침과 주로 관련한 것으로 음풍농월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김응정 사후(死後) 후대인의 평가

1) 애도(哀悼) 시인들의 평가

김응정이 세상을 뜨자 여러 사람이 그를 애도하는 시를 계속 지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일시적으로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마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김응정의 경우 남다른 점이 있었다. 김응정이 죽은 뒤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를 애도하는 시를 지은 사람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해암문집』 부록 권2를 보면, 현재 남아있는 시 작품은 백상현(白尙賢)이 지은 「애김처사(哀金處士)」, 서봉령(徐鳳翎)이 지은 「은괄해암김처사문(櫪栝解菴金處士聞)」 및 「우추도삼절(又追悼三絶)」, 「우은괄봉명결(又櫪栝鳳鳴閣)」, 윤항서(尹恒緒)가 지은 「차서매학은괄가곡운(次徐梅壑櫪栝歌曲韻)」, 신명규(申命圭)가 지은 「차매학운도해암(次梅壑韻悼解菴)」 및 「우화도리곡(又和桃李曲)」, 이몽제(李夢梯)가 지은 「추회선생운(追懷先生韻)」 및 「우차봉황대운(又次鳳凰臺韻)」 등이 있다.

백상현(1595~?)의 자는 경휘(景輝)요,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할아버지는 백광훈(白光勳)이고, 아버지는 백진남(白振南)으로, 주로 전남 영암에서 거주하였다. 백상현은 김응정보다 무려 68년이 더 늦다. 그러니까 김응정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백상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백상현은 주로 영암에서 살고, 김응정은 강진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만났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김응정이 세상을 뜨자 백상현은 「애김처사」라는 시를 남겨 죽음을 애도했다. 서봉령(1622~1687)의 자는 경휘(景翬)이고, 본관은 이천(利川)으로, 평생 처사로서 전남 나주 남평에서 살았다. 안방준(安邦俊)의 제자로 스승의 문집 『은봉전서(隱峯全書)』를 편차하였으며, 윤선거, 윤증, 김수항, 박세채 등과 교유하였다. 특히, 윤증의 『명재유고』에 서봉령에게 보낸 답장 편지 여덟통이 확인되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서봉령은 김응정이 세상을 뜬 2년 뒤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응정을 만날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응정과 관련한 시와 문장을 지어 애도의 마음을 간직하였다. 현재 남은 문집으로 『매학유고』가 있다. 윤항서(1681~?)의 자는 구여(久汝)이고, 본관은 해남(海南)으로, 영암에서 주로 거

주하였다. 신명규(1618~1688)의 자는 원서(元瑞) 혹은 군서(君瑞)이고 호는 묵재(默齋) 혹은 적안(適安)이며,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45세(1662, 현종3)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지평·장령 등의 벼슬을 거쳐 49세 때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 이어 정언·헌납 등을 거쳐 50세 때 남해로 유배되었다. 이후 유배에서 풀려 집의·사간·부수찬 등 주로 대간을 역임하였다. 56세 때 산릉도감 낭청이 되어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의 능을 옮기자는 천릉(遷陵) 논의가 일었을 당시 감조관인 이정기 등과 묘소 옮기는 일에 불복했다가 제주도 대장현으로 유배 갔다. 숙종 초기에 진도를 거쳐 강진에 이배되었다가 66세(1683, 숙종9) 때 유배에서 풀렸다. 신명규는 강진에 머문 동안에 강진 백운동(白雲洞)의 주인 이담로(李聃老)를 만나 「백운동초당8영」 등을 짓는 등 지역 인사들과 유대 관계를 갖기도 하였다.⁶⁾ 신명규는 강진에서 유배 생활 중에 김응정에 대해서 들었고, 나주 남평에 살고 있던 서봉령이 지은 시도 읽었다. 서봉령과 직접 만났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차매학운도해암」 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소통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몽제(1678~1756)의 자는 백승(伯昇)이요, 호는 모청당(慕淸堂) 또는 묵재(默齋)이며,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강진 만덕산 아래에서 아버지 이연령(李延齡)과 어머니 해남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은와(恩窩) 채팽윤(蔡彭胤)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고, 34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과거시험 준비를 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후 향리에서 은거하면서 시문을 지으면서 여생을 보냈다. 현재 남아있는 문집으로 『모청당유고』 1책이 있다.

이상과 같이 김응정이 세상을 뜬 뒤에 애도 시를 남긴 사람들의 면면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우선 백상현이 지은 「애김처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6) 신명규의 「백운동초당8영」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정민의 책(『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글항아리, 2015) 171-177쪽을 참조할 것.

은거인 이미 죽어 짐승들도 슬퍼하는데	幽人已去鶴猿悲
한 곡조 높이 불러 은거인을 원망한다	一曲高歌怨紫芝
적막을 읊조리던 혼은 어디에 의탁했을까	寂寞吟魂何處托
달 밝을 때 산엔 소나무 계수나무 가득찼다	滿山松桂月明時 ⁷⁾

백상현이 이 작품을 지은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마도 김응정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응정이 생을 마감했을 때 백상현의 나이는 26세였다. 백상현은 어려서부터 김응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회에 젖어 이 작품을 지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김응정이 은거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서 슬프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참고로 송구에서 말한 ‘자지(紫芝)’는 자줏빛의 영지(靈芝)를 가리킨다. 진(秦)나라 말기에 난리를 피하여 상산(商山)에 은거한 네 노인, 즉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 선생(角里先生) 등 사호(四皓)가 자줏빛 영지를 캐 먹고 배고픔을 달래면서 『자지가(紫芝歌)』를 지어 불렀다는 데에서 유래해 은자를 뜻한다.

그 다음으로 서봉령의 작품을 보겠다. 『해암문집』을 보면, 서봉령은 총 3제 6수의 시 작품을 지었다.⁸⁾ 『은괄해암김처사문』을 풀이하면 “해암 김 처사의 소문을 전체 포괄하여”이다. 시제에서 말한 ‘은괄(櫟栝)’이란 여러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전체를 포괄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은괄해암김처사문』 작품의 특이한 점은 시 제목 바로 다음에 서문을 쓰고, 김응정의 행적을 정리한 뒤에 시를 적었다는 것이다. 그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종이 승하하자 슬픈 한 곡조를 불러 두보의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

7) 金應鼎, 『解菴文集』 附錄 卷2, 「哀金處士」(백상현)

8) 서봉령의 문집 『매학유고』 권1에 김응정과 관련한 작품이 실려 있는데, 『해암유고』와 달리 2제 6수이다. 그 2제는 「又櫟栝解菴金處士聞」(4수)과 「又櫟栝鳳鳴一閱以申謚吟歎賞之餘意」(2수)이다.

하니, 그 물성은 본디 빼앗을 수 없다, [葵藿傾太陽 物性固莫奪]”는 남은 소리에 화답하였다. 여운을 널리 퍼트려 신하의 충성심과 근심의 숨겨진 덕이 절구에 그윽이 빛이 나도록 하였다. 병서.⁹⁾

이 서문의 내용을 개괄하자면, 김응정이 명종이 세상을 뜨니까 한 곡조를 불렀는데, 그것은 두보의 시에 화답한 것이었다. 두보가 지은 시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구체적인 시제는 「서울에서 봉선현으로 가며 회포를 읊은 오백자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이다. 이 작품은 두보가 43세 때 지은 것으로, 잠시 장안 근처 부주(鄜州)에 맡겨둔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어린 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요절한 사실을 알고 참담한 마음을 담아 지었다. 벼슬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당시 귀족들의 사치와 민중들의 궁핍한 처지를 그렸다. 서봉령이 말한 ‘슬픈 한 곡조’는 바로 김응정이 지은 「문명묘승하작」을 말한다. 『해암문집』에 실린 「문명묘승하작」을 띄어쓰기를 하고 장을 나누어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三冬에 뽕옷 입고 巖穴의 눈비 마자
 굴움 낀 벗뉘랄 썬 적은 업건마는
 西山에 히 지다 하니 그를 설워 흐노라¹⁰⁾

이 작품은 중장 첫 구절에 있는 ‘서산’이라는 말 때문에 일명 「서산일락지가」 또는 「서산일락지곡」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그동안 누가 지었는가? 하는 작자에 대한 이견(異見)이 끊임없이 일기도 하였다.¹¹⁾ 그

9) 金應鼎, 『懈菴文集』附錄 卷2, 「櫟栢懈菴金處士聞」(서봉령): 明廟昇遐. 悲歌一闋. 以續和杜老. 葵藿傾太陽. 物性固莫奪之遺音. 餘韻以闡揚. 畝忠葵憂之潛德. 幽光四絕. 并序.

10) 金應鼎, 『懈菴文集』卷1, 「聞明廟昇遐作」.

11) 「문명묘승하작」 작품의 작자와 관련한 논의는 진동혁(1983)과 김명순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러나 이제 김응정이 지은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봉령은 이와 같은 김응정이 지은 『문명묘승하작』 작품에 주목하고, 바로 두보의 시와 연결 지어 말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여운을 널리 퍼트려 신하의 충성심과 근심의 숨겨진 덕이 네 수의 절구에 그옥이 빛이 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곧, 김응정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근심의 숨겨진 덕이 자신의 네 수의 시를 통해 빛이 나도록 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서문의 내용은 서봉령이 김응정과 관련한 작품을 지은 사연을 말한 것으로 시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그런데 서봉령은 곧바로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김응정의 주요 행적을 정리하였다. 즉, 풀이한 시제를 보면, “해암 김 처사의 소문을 전체 포괄하여”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 곧, 김응정의 주요 행적인 셈이다. 그 주요 행적 중에서 문학과 관련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노래는 쓸쓸하고 짧지만 그 격렬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노래 부르면 세 번 탄식하는 운을 지녔다. 그래서 세상의 뜻을 지닌 선비와 숨어 지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치도록 한다. 노래를 부르면 느낌이 일어 타고난 성품과 사람이 지켜야 하는 떳떳한 도리를 읊조리도록 하여 대체로 삼강오륜의 장중하고 정직함을 증대시키니 『이소』의 슬픔과 원망보다 더 못하지는 않다. 늘 읊조리고 탄식함을 견딜 수 없으니, 시대를 뛰어넘어 옛사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생략)¹²⁾

서봉령은 위 글을 통해 김응정 시의 특징과 미적인 수준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김응정 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정서적 갈래도 말하였다. 첫 번째로 말한 정서적 갈래는 바로 격렬하면서 슬퍼하

12) 金應鼎, 『解菴文集』附錄 卷2, 『櫟栝解菴金處士聞』(서봉령): (前略) 歌雖寂寥。短闕。其激烈惻怛。有一唱三歎之韻。而使世之志士幽人。攷淚。謳吟。有感。吟天性民彝之善。以增夫三綱五常之重正。不下於離騷之哀怨。每一詠歎不勝。曠世相感之義。(省略)。

는 마음이다. 서봉령은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김응정의 작품으로 인해 “세상의 뜻을 지닌 선비와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말한 정서적 갈래는 “타고난 성품과 사람이 지켜야 하는 떳떳한 도리를 읊조리도록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서봉령은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김응정의 작품으로 인해 “삼강오륜의 장중하고 정직함을 증대시킨다”라고 하였다. 또 이러한 작품은 초나라의 충신 굴원(屈原)이 지은 『이소』의 슬픔과 원망보다 못하지는 않다 하였다. 즉, 김응정의 작품을 『이소』에 대비시켰으니, 서봉령이 생각하는 김응정 작품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서봉령은 마지막 부분에서 김응정의 작품을 늘 읊조리고 탄식한다고 하면서 시대를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서봉령이 김응정의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응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봉령은 이와 같이 김응정의 문학과 관련한 언급을 한 다음에 시를 소개하였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 겨울에 옷도 입지 않아	三冬無褐且無衣
암혈에 눈비 내려 흠뻑 젖었다	巖穴多霑雨雪霏
구름이 찬 해 가림을 못 보더라도	雲掩寒暄雖未見
서산에 해가 지니 눈물이 흐른다	西山日落淚堪揮 ¹³⁾

이 작품은 완전하지 않으나 마치 앞에서 인용한 가곡 『문명묘승하작』의 한역을 보는 것 같다. 한 겨울에 옷도 입지 않은 채 암혈에 있는데, 그때 마침 눈비가 내려 흠뻑 젖었다. 그리고 구름이 차디찬 해 가린 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서산으로 해가 지니 슬픔이 일어 눈물을 감당할 수 없다 하였다. 김응정은 명종이 세상을 떠다는 소식을 듣고 『문명묘승하작』 가곡을 통해 슬픔을 나타내었고, 서봉령은 같은 감정을 한시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서봉령이 비록 같은 시 형식은 아니지만 김응정의 감정

13) 金應鼎, 『懈菴文集』 附錄 卷2, 『穩恬懈菴金處士聞』(서봉령)

과 같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봉령이 지은 『은괄해암김처사문』 작품은 서문과 주요 행적 내용, 칠언절구의 한시가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 김응정의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감정 또한 동일시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서봉령이 지은 『우추도삼절』의 세 번째 작품을 소개한다.

신하의 작은 정성은 해를 향해 있는데	葵藿微誠猶向日
주나라의 훌륭한 신하들 어떤 마음으로 제사 모셨을까	何心膚敏裊將周
해암 선비의 슬픈 노래 울려 퍼지니	解菴徵士哀歌響
예로부터 우리나라엔 뜻 있는 선비가 슬퍼한다	千古箕邦志士愁 ¹⁴⁾

이 작품도 김응정이 지은 가곡 『문명묘승하작』을 기반으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기구에서 말한 ‘해’는 바로 임금을 상징한다. 신하는 임금을 향해 있는데, 옛날 주나라의 훌륭한 신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모셨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시경』 『문왕(文王)』에 “아름답고 민첩한 은나라 관원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주나라 서울에 와서 강신(降神)하는 술을 따라 올리며 제사를 돕는구나. [殷士膚敏 裸將于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여 승구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전 구에서 시상을 바꾸어 김응정의 노래에 대해 언급하였다. “해암 선비의 슬픈 노래”란 바로 『문명묘승하작』을 말하는데, 원문의 한자 ‘향(響)’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서봉령은 김응정의 가곡 『문명묘승하작』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김응정의 가곡을 향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다음으로 율향서가 지은 『차서매학은괄가곡운』의 네 번째 시와 신명규가 지은 『우화도리곡』 두 번째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4) 金應鼎, 『解菴文集』 附錄 卷2, 『又追悼三絶』(서봉령)

①

곤륜산의 봉황새 해동까지 울리니	崑邱彩鳳海東鳴
숲속의 못 새들 놀라 소리치며 흩어진다	驚散千林衆鳥聲
서산에 해 저 한 노래를 불렀으니	日落西山歌一闋
응당 노래 물고 궁궐에 오르리라	也應啣得上玉京 ¹⁵⁾

②

일생 동안 불평 소리 내지 않다가	生平不作不平鳴
이날은 어이해 옛 소리 들리는가	此日那聞舊日聲
봉황의 노래 곡조만 있어서	唯有鳳凰歌一曲
깨끗함은 이제 신선 세계까지 울리리	至今清絕響瑤京 ¹⁶⁾

작품 ①과 ②의 시제를 각각 풀이하면, “서매학의 은팔 가곡 시에 차운하다”와 “또 도리곡에 화답하다”이다. 즉, 작품 ①은 서봉령이 지은 시에 차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작품은 『우은괄봉명결』 두 번째 시이다. 또한 작품 ②도 압운을 보면, 서봉령의 『우은괄봉명결』 두 번째 시에 차운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선 서봉령이 지은 『우은괄봉명결』 시제를 풀이하면, “또 봉황새 울음 노래를 전체 포괄하다”이다. 이로써 서봉령은 김응정의 노래 중에 봉황이 들어간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우은괄봉명결』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응정이 지은 문학 작품 중에 ‘봉황’이 들어간 경우는 한시 『제금릉봉황대(題金陵鳳凰臺)』와 가곡 『문반정』, 그리고 『척거홍당』 등이 있다. 이렇듯 여러 작품에 ‘봉황’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봉령이 『우은괄봉명결』 작품에서 말한 봉황이 어떤 작품을 두고 말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한시 『제금릉봉황대』의 ‘봉황’은 누대의 이름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렇다고 할 때 가곡 두 작품만 남는데, 『척거홍당』보다는 『문반정』일 가능성이 높다. 김응정의 가곡 『문반정』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5) 金應鼎, 『懈菴文集』 附錄 卷2, 「次徐梅壑櫟栝歌曲韻」(운항서)

16) 金應鼎, 『懈菴文集』 附錄 卷2, 「又和桃李曲」(신명규)

仁風이 부는 날 밤의 鳳凰이 우단 말ᄃ
滿城桃李는 지는이 곳이로다 置之하라
山林애 굵고전 술이야 곳지 잇사지라¹⁷⁾

위 가곡을 보면 초장에 ‘봉황’이 나오고, 중장에 ‘도리’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서봉령이 지은 『우은관봉명결』을 필두로 윤항서가 지은 작품 ①과 신명규가 지은 작품 ②는 모두 김응정의 가곡 『문반정』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작품 ①과 ②로 돌아가 보겠다. 작품 ①은 기구에서 봉황새를 언급했기 때문에 김응정의 『문반정』과 연결 지을 수 있으나 전구에서 ‘서산’을 운운하여 『문명묘승하작』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로써 윤항서는 『문명묘승하작』을 김응정의 대표 가곡으로 인식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또한 마지막 절구에서 “응당 노래 물고 궁궐에 오르리라”라고 했는데, 그 주체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김응정의 나라에 대한 충심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김응정 가곡의 효용 가치가 그만큼 충분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작품 ②의 시제를 다시 한 번 적어보면, “또 도리곡에 화답하다”이다. 즉, 김응정의 가곡 『문반정』에 ‘화답’한 것이다. 따라서 기구에서 “일생 동안 불평 소리 내지 않은” 사람은 김응정이라 말할 수 있다. 김응정이 반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문반정』이라는 가곡을 지어 소신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명규는 시 제목에서 ‘도리곡’이라 하고, 정작 내용에서는 ‘봉황의 노래’라고 하였다. 신명규는 도리곡과 봉황의 노래를 같은 가곡으로 생각하여 혼재해 사용했던 것이다. 마지막 미련에서 “깨끗함은 이제 신선 세계까지 울리리”라고 했는데, 원문 ‘청절(淸絶)’은 “매우 깨끗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곧, 신명규는 가곡 『문반정』은 매우 청결한 작품으로, 그 때문에 신선 세계까지 울릴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17) 金應鼎, 『懈菴文集』 卷1, 『聞反正』

곧, 신명규가 김응정 가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 오이건(吳以健) 등 3인의 평가

김응정의 문학 작품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는 『부언일부(敷言一部)』 책에 실린 세 편의 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¹⁸⁾ 그 세 편의 글이란 오이건이 쓴 「김해암가곡집서(金懈菴歌曲集序)」와 오희겸(吳喜謙)이 쓴 「제해암가곡집후(題懈菴歌曲集後)」, 최정익(崔井翊)이 쓴 「제선생집후(題先生集後)」를 말한다.

오이건(1609~?)의 자는 경행(景行)이요,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김해암가곡집서」는 1690년(숙종16)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오이건의 나이는 82세였다. 「김해암가곡집서」 중에서 김응정의 문학 작품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또 가곡을 잘하여 외물에 감동되고 흥을 만나면 문득 작품을 지었다.¹⁹⁾

②

선조가 세상을 떴을 때 공의 나이는 이미 80세였는데, 슬프게 임하여 거두지 않고, 또 3년 복을 입었다. 이제 「서산일락곡」을 보면, 역시 그 해바라기의 정성을 상상할 수 있다.²⁰⁾

③

그러나 그 가곡은 맑아 잡되지 않고, 실하여 화려하지 않다. 충효의 지극한 정성이 가곡에 넘쳐 그 성정에서 발현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어

18) 일찍이 진동혁은 『부언일부』 책을 발견한 뒤에 두 편의 논문(1983년, 1985년)을 발표하여 김응정의 문학 창작 능력을 부각시켰다.

19) 吳以健, 『敷言一部』, 「金懈菴歌曲集序」: 又善於歌曲。感物寓興。輒有所作。

20) 吳以健, 『敷言一部』, 「金懈菴歌曲集序」: 宜廟晏駕。公年已八十矣。哀臨不撤。亦服三年。今見西山日落之曲。亦可想其葵衷也。

찌 음란하고 비속한 음악에 비교할 바이겠는가. 그러니 공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면서 그 노래를 일컬지 않는다면, 진정 선생을 안 것이 아니다.²¹⁾

④

선생이 지은 가곡은 잃은 것이 꽤 많아서 백분의 1도 보존된 것이 없다.²²⁾

글 ①에서 김응정이 외물에 감동되고 흥을 만나면 작품을 지었다는 것을 말했다. 김응정의 작품 창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했는데, 그와 함께 순발력이 빨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 ②에서 선조가 세상을 떴을 당시 김응정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상을 치른 것을 말하였다. 이는 김응정의 임금에 대한 충심을 말한 것으로, 「서산일락곡」을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였다. 「서산일락곡」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문명묘승하작」을 가리킨다. 글 ③에서는 김응정 가곡의 특성을 말하였다. 김응정의 가곡은 맑아 잡되지 않으며, 실하여 화려하지 않다고 했으며, 충효의 지극한 정성이 작품에 넘쳐난다고 하였다. 이는 곧, 김응정의 성정 때문이라 말하며, 노래를 반드시 일컬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응정에게 있어 가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희겸(1661~?)의 자는 복이(福爾)요,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전남 강진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오이건과 같은 본관인데, 이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희겸은 「제해암가곡집후」를 1707년(숙종33)에 작성했는데,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래를 서술한 것이 또한 매우 많으니, 이제 다시 덧붙일 필요가 없

21) 吳以健, 『敷言一部』, 「金解菴歌曲集序」: 然而其歌也。清而不雜。實而不華。忠孝至情。溢於永言。其所以發於性情也。可見矣。豈淫哇鄙俚之音。所可比也。然則。揚公之美。而不稱其歌者。非真知先生者也。

22) 吳以健, 『敷言一部』, 「金解菴歌曲集序」: 先生所詠歌曲。頗多放失。百無一存。

다. 이 가곡에 이르니, 곡조가 높아 화합할 사람이 적고, 원대한 취미를 아는 사람이 적으니,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바람에 날리는 꽃이 눈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리가 귀를 스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일에 접하고 외물을 만남에 그 성정을 감발시켜 천연에서 나오고 새기고 쪼는 데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 요속에서 높이 나와 나태해서 떨어지지 않음이며. 「백설가」와 「자지가」는 세상 사람들이 얻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제 만일 그 가곡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을 상상해보니, 속세를 벗어난 기록이 눈에 선하고, 세상을 근심하는 뜻이 급급해 하는 듯하다. 마음은 순백한 기상에 노닐고, 자취는 세속을 벗어나 어버이를 사모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생각과 때를 바로 잡고 옛날을 끄집는 뜻이 가곡 속에 넘쳐난다. 공으로 하여금 때를 강태공이 주나라를, 영척이 제나라를 만나듯이 했다면, 그 포부에 배운 것이 어찌 저들에 못지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는 내가 한번 노래 부르고 세 번 탄식하는 까닭이니, 감히 곧바로 세속의 곡조로 듣지 않는다.²³⁾

오히려 김응정 가곡의 특징을 첫째, 곡조가 높고 원대한 취미가 있으며, 둘째 천연에서 나왔고 속세에서 높이 벗어나왔다고 했다. 또한 셋째, 가곡과 김응정을 상상해보니, 속세를 벗어난 기록과 세상을 근심하는 뜻이 있다고 하였고, 넷째 어버이를 사모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곡에 넘쳐난다고 했으며, 다섯째 주나라의 강태공과 제나라의 영척과 같이 포부를 얻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글 중에 언급한 「자지가」는 은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고, 「백설가」는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고아(高雅)한 가곡의 이름이다. 『문선』 권23의 송

23) 吳喜謙, 『敷言一部』, 「題解菴歌曲集後」: 而序歌者。又疊疊焉。則今不必復贅。至其之歌曲。則高調寡和。遐趣鮮識。雖有愛之者。不過如風花之悅目好音之過耳也。其觸事遇物。感發其情性。出於天然。而不遐於雕琢。其高出謠俗。不懈而浸淫乎。白雪紫芝者。則世莫得而知也。今若即其曲。而求其心。得其心而想其人。則拔俗之標。皎皎如也。憫世之意。汲汲然也。心遊熙皞。跡脫塵白。而慕親愛君之念。匡時挽古之志。溢於曲裡。使公而遇於時。如姜之於周戚之於齊。其所抱負設施。安知不讓於彼哉。此余之所以一唱三歎。而不敢直以世俗之曲听之也。

옥(宋玉)이 지은 「대초왕문(對楚王問)」에 어떤 나그네가 초나라에서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의 속요(俗謠)를 부르니 수천 명이 따라 불렀고, 「양아(陽阿)」와 「해로(薤露)」의 노래를 부르니 몇 백 명이 따라 불렀는데, 고상한 「양춘(陽春)」과 「백설」의 가곡을 부르니 몇 십 명밖에는 따라 부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김응정의 노래가 「백설가」와 「자지가」에 대비할 만큼 수준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정익(?~?)은 본관이 전주(全州)라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최정익은 1709년(숙종35)에 「제선생집후」를 지었다. 김응정의 문학 작품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말하기를 “내가 그 가곡을 완미해보니, 어버이를 사모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말 밖에 많이 나타나 있었다. 또 간혹 세상을 민망히 여기고 세속을 오만하게 여기는 뜻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감탄하기를 그치지 못했다. 이 사물에 접하고 외물에 감동받아 그 생각을 붙여 쏟았을 뿐이니, 진정 저 가곡은 그 남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앞에서 오히겸이 말한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김응정은 가곡 창작을 여사(餘事)로 생각했을 뿐 본업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바로 김응정의 가곡관(歌曲觀)이 그렇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오이건과 오히겸, 최정익 등은 기록을 통해 김응정의 문학 작품의 특성과 수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담았다. 세 사람이 글을 쓸 당시 ‘해암가곡집’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1773년에 나온 초간본 『해암집』을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다. 세 편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초간본 『해암집』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으며, 또 다른 김응정의 가곡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최정익은 김응정이 가곡을 ‘남은 일’로 생각했다

24) 崔井翊, 『敷言一部』, 「題先生集後」: 曰余翫其歌曲。慕親愛君之誠。藹於言表。又間有憫世傲俗之意。自不覺歎賞不捨。而此觸事感物。寓寫其懷焉耳。固知夫歌曲乃其餘事。

고 했는데, 여러 글을 통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김응정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가곡도 자연스럽게 창작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많은 가곡을 창작했을 것인데, 현재 몇 편의 작품만 남아있으니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3) 이하곤(李夏坤)의 평가

이하곤은 조선 후기 문인화가이자 평론가이다. 그는 여행하기를 좋아하여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다. 한편, 그의 장인인 송상기(宋相琦)는 1722년 신임사화를 입어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이하곤은 장인도 뵈고 여행도 할 목적으로 1722년 10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호남 지역을 돌아다녔다. 이때의 여행 기록은 『남행집(南行集)』과 『남행록(南行錄)』이라는 이름으로 문집 『두타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하곤이 강진에 계신 장인을 만난 때는 1722년 11월 6일이었고, 6일 뒤인 11월 12일에 백양촌(白羊村)으로 간다. 『두타초』 권17 『남행록』1에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다시 남쪽으로 돌아 10리 쯤 가서 백양촌에 이르렀다. 옛날 처사 김응정이 살던 집이 있는데, 송강 정철과 친한 친구사이였으나 은거하여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문장을 잘 지었는데, 특히 소령(小令) 짓는 것을 좋아하였다. 창작한 여러 가곡들이 여전히 그 손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 한다.²⁵⁾

김응정을 알 수 있는 소소한 정보가 적혀있다. 우선 김응정이 백양촌이라는 마을에서 살았고, 문장을 잘 지었는데, 특히 58자 이내의 소령 짓기를 좋아했다고 하였다.

25) 李夏坤, 『頭陀草』 卷17, 『南遊錄』: 復南轉十里。至白羊村。昔有處士金應鼎居之。與松江相友善。隱居不仕。能文詞。尤喜作小令。所作諸曲。尙藏其孫家云。

이하곤은 또한 강진과 관련한 10수의 한시 『강진잡시(康津雜詩)』를 지었는데, 그 여덟 번째 작품에서 김응정을 언급하였다. 그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백양촌의 김 처사는	白羊村裡金處士
일생 동안 정송강을 지기 삼았네	一生知己鄭松江
그의 가사는 회자되어 여전히 들리니	歌詞膾炙聞猶在
『관동별곡』과 쌍벽이 될 정도이다	可作關東別曲雙 ²⁶⁾

위 『남행록』의 기록 내용을 시로 옮겨놓았다. 특히, 김응정과 정철이 친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창작 능력 또한 두 사람이 비슷하다라고 결론지었다. 한편, 주목되는 점은 전구에서 말한 “그의 가사는 회자되어 여전히 들리니”이다. 아마도 이하곤이 강진에 갔을 때 김응정이 지은 어떤 가곡이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불리고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이하곤이 그 노래를 들었고, 시의 전구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김응정의 가곡과 정철의 『관동별곡』이 쌍벽을 이룬다는 이하곤의 평가는 비록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왜 이러한 언급을 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4. 평가의 특징과 의의

김응정이 세상을 뜬 뒤에도 그의 문학 작품은 꾸준히 평가받고 있었다. 평가라고 하기 보다는 비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비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비평’이라는 말 속에 전문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

26) 李夏坤, 『頭陀草』 卷10, 南行集 下, 『康津雜詩』 其八.

었다. 사실 김응정의 문학 작품을 거론하여 말한 사람들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춘 비평가가 아니고 짧게 언급하고 마는 수준에 그쳐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김응정의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의 특징은 크게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형식적인 것이란 문학적인 틀을 말하고, 내용적인 것이란 무엇을 담았는가를 말한다. 우선 형식적인 특징을 언급하겠다. 김응정은 세상을 뜬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기렸다. 그러는 중에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그를 슬퍼하는 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김응정을 애도한 사람들은 시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시란 원래 함축적인 특성을 지닌 장르이기 때문에 문장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응정을 애도한 시 속에서 그의 문학 작품을 거론한 것은 한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내용적인 특징을 언급하겠다. 평가한 내용을 통해 첫째, 김응정이 남긴 문학 작품 중에서 후대인들은 어떤 것을 대표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 후대인들이 평가한 내용을 보면, 역시 가곡 『문명묘승하작』과 『문반정』이 자주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까닭은 두 작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제가 임금에 대한 충심을 강조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글에서 김응정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다는 말을 언급하였고, 실제 작품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드러났으니 사람들은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거론하였다. 둘째, 여러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응정 문학 작품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김응정은 어려서부터 ‘효동’으로 알려질 정도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였고, 임진왜란 등 나라에 변고가 생겼을 때 손수 밭 벗고 나서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전통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의 주요 덕목을 몸소 실천해 옮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주요 문학 작품도 이러한 전통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과 관련지을 수가 있다.

김응정은 강진에서 태어나 강진에서 일생을 살다간 향촌의 사족이다. 사족임에도 불구하고 노래 부르기를 잘하고, 가곡 창작도 자유자재로 하였다. 그리고 그가 지은 가곡은 훗날까지 여러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김응정이 지은 가곡의 의의는 바로 이런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해암 김응정의 가곡에 대한 후대인들의 평가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언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선 김응정의 문예 기질과 가곡 창작 능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의경이 지은 「행장」에 따르면, 김응정은 어려서부터 노랫말 짓기를 잘하였다. 그 노랫말은 음풍농월에 그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교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어 김응정이 지은 가곡 8편의 대략적인 내용도 정리하였다.

김응정 사후 후대인의 평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 갈래는 현재 전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첫째, 애도 시인들의 평가 내용을 살폈다. 김응정은 세상을 뜬 뒤에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남겼다. 현재 남아있는 시 작품으로는 백상현이 지은 「애김처사」, 서봉령이 지은 「은팔해암김처사문」 및 「우추도삼절」, 「우는 팔봉명결」, 윤항서가 지은 「차서매학은팔가곡운」, 신명규가 지은 「차매학운도해암」 및 「우화도리곡」, 이몽제가 지은 「추회선생운」 및 「우차봉황대운」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품 중에서 문학 작품을 평가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오이건이 쓴 「김해암가곡집서」와 오희겸이 쓴 「제해암가곡집후」, 최정익이 쓴 「제선생집후」에 담긴 김응정의 문학 작품 평가 관련 내용

을 추출해 실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셋째, 조선 후기의 조선 후기 문인화가이자 평론가인 이하곤의 평가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이하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김응정 사후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서 강진 현지에서 들은 내용을 기록을 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상 김응정 사후 문학 작품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응정 문학 작품의 평가의 특징과 의의를 언급함으로써 글을 끝맺었다.

참고문헌

『敷言一部』(단국대학교 소장)

곽기수, 『한벽당집』

김응정, 『해암문집』

서봉령, 『매학유고』

이의경, 『동강유고』

李夏坤, 『頭陀草』

김신중,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도서출판 다지리, 2001.

김응정 저, 양광식 역, 『해암문집』, 강진문헌연구회, 1994.

정 민,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글항아리, 2015.

조지형, 「寒碧堂 郭期壽의 국문시가 향유 양상과 시가사적 의미」, 『민족문화연구』 74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9-38쪽.

진동혁, 「김응정 시조 연구」, 『국어국문학』 90집, 국어국문학회, 1983, 279-297쪽.

_____, 「金懈菴歌曲集序等에 관하여」, 『겨레어문학』 10권, 겨레어문학회, 1985, 447-459쪽.

<Abstract>

Next Generation's Evaluation of Songs By Haeam Kim Eung-Jeong and The Meaning

Park, Myoung-Hui*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next generation's evaluation of Haeam Kim Eung-Jeong's songs and suggest the meaning.

Kim Eung-Jeong travelled a lot to search for good sceneries as he liked nature and sometimes built pavilions at the places he visited to take a rest during traveling. Also when he was inspired to write songs, he expressed what was felt to his heart's contents. As a result, the following songs were created and have been inherited: 『Munmyeong-Myoseung-Hajak』 · 『Sobunseol』 · 『Jikchop-Hajak-Chabulki』 · 『Kimbyeong-Sapina-Sijak-Chajeongji』 · 『Munbanjeong』 · 『Tangongja』 · 『Cheokgeo-Hwungdang』 and 『Gamhui』.

This study categorized next generation's evaluation after his death into three parts: First, mourners's evaluation was investigated. When Kim Eung-Jeong was dead, many poets wrote poems expressing sorrow. Extant poems were 『Aekimchusa』 by Baek Sang-Hyeon, 『Eungwalhaeam Kimcheosamun』, 『Woochudosamjeol』 and 『Wooeun-gwalbong-myeonggyeol』 by Seo Bong-Ryeong, 『Chaseomaehak-Eungwalgagokun』 by Yoon Hang-Seo, 『Chamaehakundohaeam』 and 『Woohwadorigok』 by Shin Myeong-Gyu, 『Chuhoisunsaengun』 and 『Woochabonghwangdaeun』 by Lee Mong-Je. This study gave a focu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 the evaluation of songs.

Second, what was evaluated on his literary works was extracted from 『Kimhaeam Gagok Jipseo』 by O Ee-Geon and 『Jehaem Gagokjiphu』 by O Hee-Gyeom, and 『Jeseonsengiiphu』 by Choi Jeong-Ik.

Third, this study listened to what Lee Ha-Gon, a scholar painter and reviewer of the late Joseon period, evaluated his literary works. It was considered that Lee Ha-Gon's evaluation has meaning in that what was heard from Gangjin was recorded long after Kim Eung-Jeong was dead.

Finally, this study pointed out that next generations mentioned 『Munmyeong-Myoseung-Hajak』 and 『Munbanjeong』 the most. Kim Eung-Jeong was lived in Gangjin far away from Seoul as well as he was not an official. However, this study gave a meaning to the fact that next generations have continuously recognized his literary creativity.

Key Words: Haeam Kim Eung-Jeong, Gangjin, Jeonnam,
『Munmyeong-Myoseung-Hajak』, Seo Bong-Ryeong, O
Ee-Geun, O Ee-Gyeom, Choi Jeong-Ik, Lee Ha-Gon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4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4일

